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7(4), 445-461 (2022)

시간 표현의 개념적 은유 연구

김현효

공주대학교

A Research on Time Expressions based on Conceptual Metaphor Theory

Kim, Hyun Hyo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7.4, 445-461**. We cannot conceptualize time on its own terms. Conceptual metaphor theory shows how source domains including resource, space, entity, or even person are used to conceptualize time as a target domain. Since Lakoff and Johnson (1999), many linguists have focused on how space concepts are used to understand and express time. Evans (2004) developed a cognitive model for time, including the 'moving time model', 'moving ego model', and 'temporal sequence model'. Later Evans (2013, 2019) adopted a unique characteristic of time, 'transience' and developed three temporal frames of references (t-FoRs) model: deitic t-FoR, sequential t-FoR, and extrinsic t-F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conceptual metaphor, moving time model, moving ego model, temporal sequence model, temporal frames of reference

OPEN ACCESS

https://doi.org/10.18627/jslg.37.4.202202.445

pISSN : 1225-4770
eISSN : 2671-6151

Received: January 10, 2022

Revised: February 04, 2022

Accepted: February 12, 2022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22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 서 론

전통적으로 은유는 문학작품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며, 일상적인 의미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유적 표현으로 보았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도 은유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주목한 것은 Lakoff와 Johnson(1980)이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Lakoff(1993)는 '은유란 개념 체계 내에서의 영역간의 사상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한다. 은유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신체적인 경험 등 직접적인 경험을 이용하며 일, 시간, 변화, 정신적 활동, 감정, 인과관계 등 일상에서 사용되는 많은 추상적 개념들이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라는 것은 이제 정설이다.

우리는 매순간 시간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표현하지만 시간을 인지할 수 있는 인간의 감각기관은 없다. 공간은 주로 시각을 통해서 지각되지만 시간은 추상적이어서 시각 등의 감각을 통해 직접 지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공간이나 운동, 사건에 기초하여 추상적인 시간을 인식하려고 한다[1]. 실제로 공간, 운동, 사건 뿐 아니라 그릇, 사람, 자원 등 우리 삶의 다양한 구체적 개념을 이용해서 시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한다.

시간의 개념적 은유 연구는 초기 연구이며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Lakoff와 Johnson(1980,1999)이 있다. Evans(2004)는 시간표현 은유 중 시간의 이동과 관련하여 '움직이는 시간 모델' 과 '움직이는 사람 모델', 그리고 '시간 순서 모델'로 분류한다. Boroditsky(2000)는 은유적 사상을 통해 공간이라는 구체적인 경험이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영역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보였다. 시간에 대한 언어학적 분류가 심리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주목하였고 결과적으로 시간과 공간간의 개념적 은유가 심리적으로 실재함을 보였다. Boroditsky와 Ramscar(2002)는 이동에 대한 사고가 시간의 이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였다. Núñez 외(2006), Núñez와 Sweetser(2006)는 참조점의 개념을 도입해서 관찰자 참조점, 시간 참조점 그리고 두 시간들 간의 순서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이 움직이지 않거나 관찰자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다. Moore(2006, 2011)는 '참조틀(frames of reference)'을 이용하여 전/후 대조에 관해 관찰자의 관점과는 무관한 '필드기반(field-based) 관점'과 관찰자의 관점이 반영된 '자아 관점' 참조틀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Tenbrink(2007)는 Levinson(2003)의 공간 참조틀에 기반 한 시간 참조틀을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Galton(2011)은 시간 고유의 특성인 일시성에 주목한다. Evans(2013)는 Moore(2006)와 Kranjec(2006)를 이어 Galton(2011)이 주목한 일시성을 반영한 시간 참조틀을 제안한다. 백미현(2014)은 자아중심적, 탈자아, 객관화된 자아해석으로 구성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외 Kövecses(2003, 2010), Alverson(1994), Yu(1998)는 개념적 은유의 범언어적인 특징이나 문화적 차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하였다.

개념적 은유이론의 틀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집중한 부분은 시간을 이해할 때 공간을 활용하여 은유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공간과 시간의 사상(mapping)이라는 측면에 연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론이 발전하면서 공간 참조틀을 활용한 시간 참조틀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공간과 시간이 공유하지 않는 부분인 시간의 일시성에 주목한 Galton(2011)을 도입하여 Evans(2013, 2019)가 시간 참조틀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 인식의 모형을 개념적 은유 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가 발전되어온 과정을 따라가며 시간에 대한 인지모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시간은유의 근원영역에 따른 개념화 양상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Lakoff와 Johnson(1999)과 Evans(2004)의 시간의 인지모델과 그리고 그 이후 공간 개념에는 없는 시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Evans(2013, 2019)의 시간 참조틀 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시간의 개념적 은유

개념적 은유란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을 바탕으로 어떤 대상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 알고 있는 영역은 근

1) Evans(2004)는 시간인식(temporal cognition)을 언어자료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시간경험은 감각경험(sensory experience) 과정과 연관된 지각적(perceptual) 메커니즘과 궁극적으로 관련되어있다고 주장한다. 시간은 외부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어서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직접 지각되지 않지만 실재로 경험하는 어떤 것인 것은 확실하다.

원영역,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영역은 목표영역이라고 한다. 이 근원영역과 목표영역간의 연결을 사상이라고 한다. '시간은 흘러간다.' '시간을 낭비한다.' '시간을 아껴 쓴다.'고 할 때 시간을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표현은 시간을 움직이는 물체로 '시간을 아껴 쓴다.'는 시간을 귀중한 자원으로 각각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은 환유와 은유 두 가지로 볼 수 있다[2]. 은유와 환유의 동질성은 본질적으로 언어표현 이전에 개념적이며, 관습적이며, 언어의 자원을 확장시키는 수단이며, 사상과정이다. 은유는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두 가지 다른 영역 간의 사상을 포함하지만, 환유는 '인접성'에 바탕을 두어 한 가지의 같은 영역 내의 사상이다. 시간을 환유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에서, 시간은 사건들 간의 비교로부터 인식된다. 우리가 시간을 경험할 때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체화된 개념화가 일어난다. 가령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사건을 통해 '하루'라는 시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건이라는 실제 경험과 관련해서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시간의 인접성에 따른 환유화 양상은 3가지로 분류된다. 아래 예문을 통해 보자:

(1) a. 월드컵 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b. 나는 친구가 운전하는 동안 100킬로미터를 자고 있었다.
c. 어제의 소년이 오늘에는 백발이 다 되었다. (임지룡, 2002)

시간의 환유화 양상은 첫째, 사건이 시간을 대신하거나, 시간이 사건을 대신하는 경우이다. 예문 (1a)의 '월드컵 대회가 다가오고 있다'에서 '월드컵 대회'라는 사건이 '월드컵대회 개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은 거리가 시간을 대신하거나 시간이 거리를 대신하는 경우로서 예문 (1b)이 해당된다. 100킬로미터는 거리이지만 그 거리를 이동한 시간동안 잠을 잤다는 것이므로 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환유적 표현이다. 셋째로, 시간의 한 부분이 전체 시간을 대신하는 경우로서 예문 (1c)가 해당한다. '어제의 소년이 오늘에는 백발이 다 되었다.'에서 '어제'는 오늘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나타내어 시간의 한 부분이 전체 시간을 대신하는 환유적 표현이다. 아래 2.1 부터는 Lakoff와 Johnson(1980, 1999)에 의거하여 시간의 개념적 은유를 근원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1 시간은 자원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개념적 은유를 사용한 시간 인식 방식을 보자. 우선 [시간은 자원 TIME IS RESOURCE]이라는 개념적 은유이다. 아래 (2a)의 '시간을 다 써 버렸다'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시간은 자원'은유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2) a. You've used up all your time.
b. Don't waste your time.
c. I have invested a lot of time to her.

2) 시간인식의 환유적 양상과 은유적 양상에 대해서는 Lakoff와 Johnson(1999)와 임지룡(2002)을 참조함.

‘시간은 자원’은유는 ‘시간은 상품’이라는 개념적 은유로 세분화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3) a. Time has become a scarce commodity. Everyone wants more of it.
b. The psychiatrist charges a lot for her time.
c. They sold/bought more advertising time.
d. A few techniques to create more time in your day.
e. We lost a lot of time today in ridiculous meeting. (Evans, 2004: 177)

(3a)는 시간을 희소한 상품으로, (3b, c) 는 시간은 사거나 팔 수 있는 대상으로, (3d)는 시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3e)는 시간을 잃을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시간의 재화 또는 상품이라는 개념적 은유는 돈과 시간을 동일시하게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사고로 인해 ‘시간은 자원’이라는 개념적 은유가 많이 쓰인다. Lakoff와 Johnson(1999)에 따르면 이러한 개념은 자본주의 문화의 소산이며 반대로 자본주의사회가 아닌 Pueblo의 언어로 ‘I didn’t have enough time for that.’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다고 한다. 그 일(that)에 쓸 시간이라는 ‘시간은 자원’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어와 관련해서도 맥을 같이 하는 김진해(2009)의 연구가 있다. 그는 한국어의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의 판소리 계를 포함하여 고소설 자료 280만 어절을 대상으로 분석 연구하였는데, 한국의 고소설에서 ‘시간은 자원’이라는 개념적 은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신소설에서 비로소 ‘시간은 자원/돈’의 개념적 은유가 적용된 표현들이 낮은 빈도로 출현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TIME IS RESOURCE]의 개념적 은유는 근대문명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2 시간은 사람

다음으로 [시간은 사람 TIME IS A PERSON]은유를 보자. 시간이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유정물로 이해되는 경우이다. ‘시간은 사람’이라는 개념적 은유는 ‘존재론적 은유’로서 ‘시간은 개체’나 ‘시간은 유정물’이라는 개념적 은유로 함께 분류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시간은 사람’에만 한정해서 살펴본다.

(4) a. He won’t wait for you long.
b.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c. Time will tell.
d. Time is never on your side.

(4a)는 그가 너를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며, 사람이 기다리는 행동의 행위자가 되는 일반적 표현이다. (4b)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표현으로서 시간이 마치 사람처럼 기다리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4c) 역시 시간이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표현 된다. (4d)의 의미는 ‘시간은 네 편이 아니다’로서 시간이 누구의 편을 들어 줄 수 있는 판단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처럼 표현된다.

2.3 시간은 공간

우리는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공간적 개념 특히 움직임을 많이 사용한다. 시간은 추상적이고 덜 구조화된 경험 세계인 목표영역이며, 공간은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경험 세계인 근원영역으로서 시간의 개념화에는 은유적 투사가 작용하는데 이러한 시간 개념화는 범언어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시간은 공간(TIME IS SPACE)]은유는 시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before, from, through, behind, ahead of, in, at' 등을 시간 표현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5) a. That's all behind us now.
b. We live in the age of darkness.
c. We are getting close to summer.

(6) a. He ran a mile in five minutes.
b. They sealed their painful memories in the past.
c. The execution occurred at 10:06 P.M.
d. I am just on time.

위 예문에서 실제 은유의 사용 예를 보자. (5a)에서 '이제는 다 지난 것이다'라는 의미로 지나간 일은 우리의 뒤에 있는 것이다. (5b)는 '우리는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다'로 암흑의 시대라는 공간 속에 우리가 들어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5c)는 우리가 여름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으로 여름과 우리의 거리(공간)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표현한다. 예문 (5)는 시간이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 지향적 은유에 해당한다. 시간을 공간적으로 개념화하여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공간이나 그릇으로 은유되는 표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문 (6)은 같은 공간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시간의 존재론적 은유에 해당한다. 예문 (6a, b)은 '시간은 그릇'이라는 개념적 은유가 적용된 것으로서 전치사 in을 사용하여 마치 달리는 사건(ran)이 시간(5 minutes)이라는 그릇에 담긴 것으로 그리고 아픈 기억을 과거라는 그릇에 담아 봉인한 것으로 표현된다. (6c)에서는 전치사 at이 사용되어 시간의 한 지점(location)인 10시 6분이라는 순간에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며 (6d)에서는 시간상의 한 점 위(on)에 사람이 위치한 것으로 표현한다.

2.4 시간은 개체

[시간은 개체(TIME IS AN ENTITY)]은유를 보자. 아래 예문 (7)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거나 '타자수가 없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래를 직면할 자신이 없다', '미래를 정면으로 대하자'라는 은유적 표현들은 마치 시간이 움직이거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한다. 시간이 움직이는 어떤 것으로 이해되고 표현될 때는 시간이 움직이는 방향과 관찰자 또는 자아의 방향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7) a. Time is flying by.
b. The time will come when there are no more typewriters.
c. The deadline is approaching.
d. I can't face the future.
e. Let's meet the future head-on.

지금까지 시간의 개념적 은유연구를 주로 근원영역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분류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원영역에 따른 분류가 겹치기도 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과거의 연구들은 주로 '시간은 공간[TIME IS SPACE]', '시간은 자원[TIME IS RESOURCE]', '시간은 사물[TIME IS AN ENTITY]', '시간은 사람[TIME IS A PERSON]'으로 구분하였는데, 연구자에 따라 '공간'과 '사물'을 하나로 묶거나 '사물'을 '유정물'과 '무정물'로 그리고 '사람'을 '사물'과 하나로 묶기도 하고 '공간'에서 '그릇'을 따로 분리하기도 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Lakoff와 Johnson(1999)의 개념적 은유를 이용한 설명과 Evans(2004)의 인지모델, 그리고 Evans(2013, 2019)의 시간 참조틀을 살펴본다.

3. 시간의 인지모델

Lakoff와 Johnson(1999)은 시간의 움직임과 관련한 개념적 은유를 시간지향은유(Time Orientation Metaphor)를 기본으로 하여 그 움직임의 방향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인식되는 지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MOVING TIME]'과 '움직이는 관찰자[MOVING OBSERVER]'은유로 분류하였다. '움직이는 시간'은유는 관찰자가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고 그 관찰자를 시간이 지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움직이는 관찰자'은유는 시간은 지상의 한 위치로서 관찰자가 그 지점을 지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시간과 관찰자 중 움직이는 것이 반대로 바뀔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경 배경 역전(figure-ground reversal)'이라고 설명한다. '움직이는 시간'은유는 관찰자가 배경(ground)이 되며 시간은 전경(figure)이다. '움직이는 관찰자'은유는 관찰자가 전경이고 시간은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과거는 공간적으로 뒤에 위치하고 미래는 앞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관찰자가 움직이느냐 시간이 움직이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는 점을 주목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8) a. Christmas is getting closer.
b. We are moving up on Christmas.
c. Let's move the meeting ahead a week.

위 예문에서 (8a)는 '움직이는 시간'은유 표현이다. 시간인 크리스마스가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한다. (8b)는 '움직이는 관찰자' 은유 표현이다. 관찰자인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다. (8c)는 '전경배경역전'에 따라 해석의 중의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원래 정해진 회의가 14일이라고 가정하면, '움직이는 시간'은유로 해석하면 시간이 관찰자를 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앞(forward)은 관찰자가 위치한 현재로 가까워 져서 7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는 관찰자'은유로 해석하면

관찰자가 시간을 향해 움직이므로 21일이 되는 것이다.

관찰자 또는 자아 앞에 미래가 있다고 이해하는 현상이 많은 언어에서 관찰되지만 아이마라어는 '과거는 앞[The Past Is In Front]'이라는 문화 특정적인 개념적 은유가 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눈앞에 있어서 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화(American Sign Language)나 실험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앞은 미래, 과거는 뒤에 라는 시간-공간 매칭이 범언어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문화 또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관찰자'은유나 '움직이는 시간'은유를 더 선호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김기수(2019: 234)는 한국어 화자들은 중의적 문장을 이해할 때 '움직이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3.1 자아기반과 시간기반의 인지모델

Evans(2004)는 시간을 공간과 공간위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Lakoff와 Johnson(1999)과는 다른 모형을 채택하는데 '자아기반모델(ego-based model)'과 '시간기반모델(time-based model)'로 구분한 뒤 '자아기반모델'은 '움직이는 시간 모델'과 '움직이는 자아모델'로 다시 세분한다. 그리고 '시간기반모델'은 '시간순서모델'로 표현된다. 이러한 분류를 나타낸 것이 아래의 <그림 1> 시간의 인지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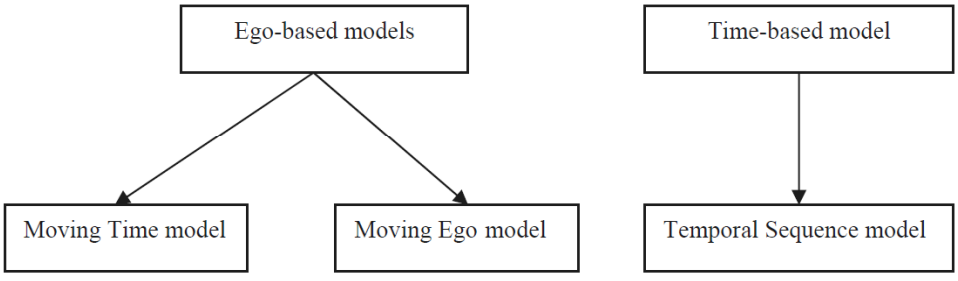

그림 1. 시간의 인지 모델(Evans, 2004)

'자아기반 모델'은 경험자 또는 관찰자라 할 수 있는 자아를 기반으로 시간 참조점을 형성한다. 이때 자아의 '지금'이 기반을 형성한다. 그래서 현재, 미래, 과거는 위치와 관련되고 미래는 자아의 앞에, 현재는 자아와 함께, 그리고 과거는 자아의 뒤에 위치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그래서 현재, 미래, 과거라는 시간개념은 자아를 중심으로 하여 물리적인 위치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9) a. From our perspective here in the present, the Victoria era was a bleak place. (현재)
b. She has a bright future ahead of her. (미래)
c. His troubled past lies behind him. (과거)

예문 (9a)는 현재는 여기(here)라는 장소 개념과 연결되며, 과거 빅토리아 시대라는 시간이 암울한 장소로 표현되는 것이다. (9b)에서 미래는 그녀 앞(ahead)에 위치한 것이다. (9c)는 그의 뒤(behind)에 과거가 위치한다. 이어서 각 모델에 해

당하는 예문과 자세한 설명을 보자.

3.1.1 움직이는 시간 모델

'자아기반 모델'에서 '움직이는 시간모델'은 자아는 정지해 있고 시간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자아의 위치를 참조점으로 하여 자아 앞에 있는 시간은 미래이며 자아가 있는 현재로 다가와서 자아를 지나 과거라는 뒤로 간다. 다음 예문을 보자. (10a)는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 시간이 움직이는 것이다. (10b)는 졸업식이 다가오고 있으며 (10c)는 마감일이 지났다. 세 문장 모두 사람은 정지되어 있으며 시간이 움직이는 것이다.

(10) a. Christmas is getting closer.
b. Graduation is coming up.
c. The deadline has passed.

예문 (10)은 '움직이는 시간 모델'로서 아래 <그림 2>처럼 나타낼 수 있다. 자아가 시간을 대면하고 있으며 자아 앞에 미래가 뒤에 과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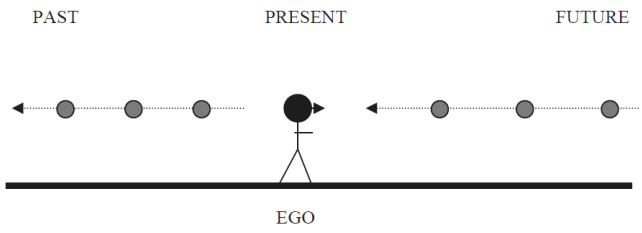

그림 2. 움직이는 시간 모델(Evans, 2004)

3.1.2 움직이는 자아 모델

'움직이는 시간 모델'의 예문과는 달리 관찰자인 사람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움직이는 자아 모델'을 활용한 표현도 많다:

(11) a. We're coming up on Christmas.
b. We've reached June already.
c. Manchester United FC is approaching three matches in the space of 5 days.

'움직이는 자아 모델'은 자아가 정지해 있는 대상인 시간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시간을 개념화한다. 예문 (11a)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쪽으로 가고 있으며 이때 크리스마스는 정지된 것처럼 표현된다. (11b)는 6월이라는 시간은 정지해 있고 자아가 이동하여 6월에 도착한 것으로 표현된다. (11c)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가 5일 동안 3개의 시합을 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인데, 5일간이라는 시간이 공간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때는 맨체스터유나이티드 FC라는 팀이 자아로서 5일이라는 시간을 향해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움직이는 자아 모델'은 아래 <그림 3>처럼 시간은 정지해 있고 현재에 위치한 자아가 앞쪽 즉, 미래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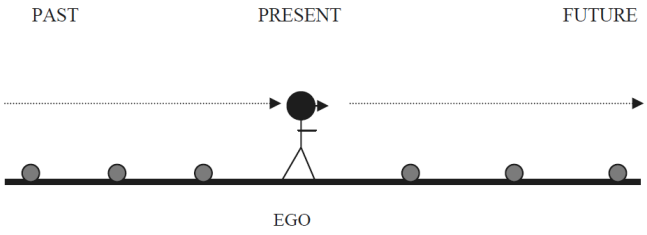

그림 3. 움직이는 자아 모델(Evans, 2004)

3.1.3 시간적 순서 모델

'시간 기반 모델'은 시간이 사건들 간의 순서로 인식된다. 이를 '시간적 순서 모델'이라고 한다. 이 모델에서는 자아(ego)가 없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과 관련되어 상대적인 위치가 설정된다. <그림 4>처럼 사건들이 직렬로 정렬되어 순서가 생긴다. '자아기반모델'에서는 '움직이는 자아 모델'이라면 앞에 있는 것이 미래이고 뒤에 있는 것이 과거가 되며, '움직이는 시간모델'에서는 앞에 있는 것이 과거이고 뒤에 있는 것이 미래이지만, '시간적 순서 모델'에서는 시제 개념이 없이 순서만 있다.

(12) Christmas follows Thanksgiving.

(13) a . In the following weeks...(future)
b. In the preceding weeks..(past)
c. ? Thanksgiving is in front of the Christmas.
d. ? Christmas is behind Thanksg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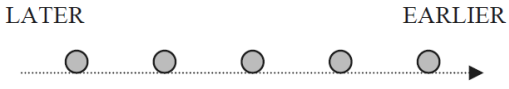

그림 4. 시간 순서 모델(Evans, 2004)

(12)문장은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이 순서를 이루고 있다. 이때 시간과 관련된 자아의 위치는 어디에도 없으며 두 시간의 순서만 존재하게 된다. 이 모델에서 (13a)에서 'following'이 미래를 나타내며 (13b)에서 'preceding'이 과거를 나타낸다. 순서모델에서는 동사는 follow나 precede가 그리고 전치사는 before나 after가 쓰이는데 이 어휘들은 순서에만 사용된다. 반면에 (13c, d)에서 in front of 나 behind는 시간의 순서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정적인 공간을 보이는 장면에만 쓰인다는 점은 흥미롭다.

3.2 시간 참조틀

시간의 이해를 위해 공간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많은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간 참조틀을 시간에 적용한 연구로 Tenbrink(2011), Moore(2011), Bender와 Beller(2014)가 있다. 시간 참조틀(t-FoR: temporal frame of reference)은 기본적으로 Talmy(2000)와 Levinson(2003)에서 사용된 공간 참조를 시간의 인식 모형에 적용한 것인데 공간 참조틀(s-FoR: spatial frame of reference)은 전경, 참조물 그리고 출처로 구성된다.[3] <그림 5>는 출처가 관찰자로서 나무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도출되는 상대적 공간 참조틀을 보여준다. 참조물로서의 나무는 내재적인 좌표가 없으므로 상대적인 참조틀이 관찰자로부터 도출된다. 그래서 “The cat is in front of the tree.”나 “The dog is on the right side of the tree.”라는 상대적 참조틀에 의한 기술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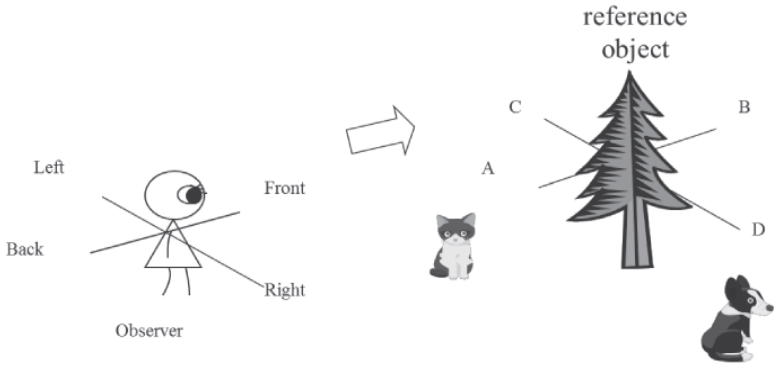

그림 5. 상대적 공간참조틀(Evans, 2013)

3.2.1 Tenbrink(2011)의 시간 참조틀

시간 참조틀의 초기 연구는 공간 속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언어표현을 분석함으로써 시간 참조의 모델을 만들었다. 초기 연구로 Moore(2006, 2011)와 Núñez와 Sweetser(2006)가 시간 참조점을 도입하고 직시적 참조점 그리고 순서 참조점을 이용해 시간 개념을 기술하였다. Zinken(2010)은 시간관계, 좌표, 그리고 참조틀로 구성되는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Tenbrink(2011)는 Levinson(2003)의 공간 참조틀(s-FoR)을 시간에 적용하여, 정적인 관계 뿐 아니라 동적관계도 포함하는 10개의 시간 참조틀을 만들게 되는데, 내재적 개념, 상대적 개념, 절대적 개념으로 구분하고, 상황은 정적, 동적으로 구분한다. 다시 정적, 동적 상황은 관점으로서의 이동방향, 위치항을 향하는 이동, 출처에서 위치항으로의 이동, 관계항에서 위치항으로의 이동을 기준으로 모두 10개의 시간 참조틀을 구성한다. 이때 좌표를 고정시킬 수 있는 출처(origo)는 배경(ground)에서 내재적으로 도출되거나, 관찰자의 방향을 투사해서 상대적으로 도출되거나, 동서남북 같은 방위가 절대적으로 도출된다. (a)는 각 도형의 정의이다. R은 관계항, L은 위치항, P는 관점을 나타낸다. (b)는 내재적 참조틀, (c)는 상대적 참조틀, (d)는 절대적 참조틀에서 각 항들의 관계를 보인다.

3) figure(F): 전경, 개체가 위치를 잡고 있는 것
reference object(RO): 참조물, F의 위치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개체
origo(O): 출처, RO의 좌표를 고정시키는 개체, 탐색 영역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함. 방향출처로 번역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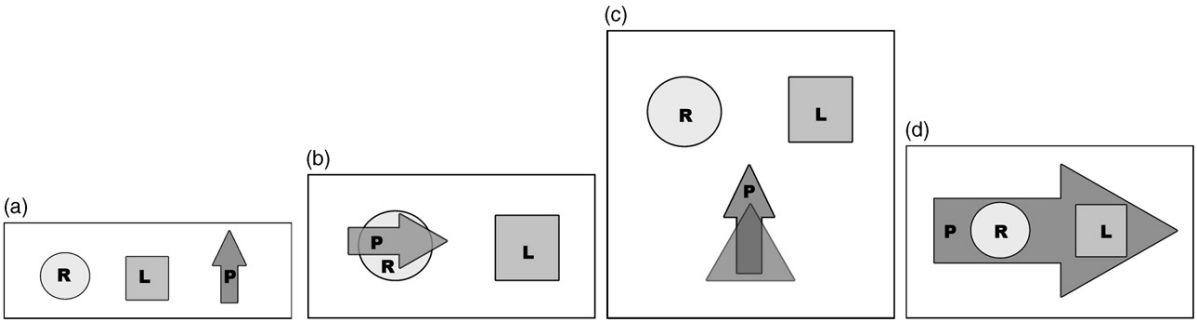

그림 6. 참조틀의 종류 Tenbrink(2011)

아래 예문 (14 b, c, d)는 Tenbrink(2011)에서 사용된 10개의 시간 참조틀 중에 각각 내재적 참조틀, 상대적 참조틀, 절대적 참조틀에 의한 시간 기술을 보여준다.

(14) a. There is a box in front of me.
b. There is a box to the right of the ball(from my point of view).
c. There is a box east of the ball.

(14a)는 내재적 유형인데 <그림 6>의 (b)에 해당한다. 이때 'box'는 위치항(L), 'me'는 관계항(R)이면서 출처이고, 위치항과 관계항의 관계가 관계항의 내재적 특징에 의해 'in front of'(P)로 기술되었다. (14b)는 <그림 6>의 (c)에 해당하며 내재적 유형과 달리 관계항(R) 'ball'이 아닌 다른 개체에 의해 관점(P)이 표시된다. 'ball'은 내재적인 특성으로 앞, 뒤나 왼쪽, 오른쪽이 없으므로 화자나 청자의 관점에 의해 관점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림 6>에서 삼각형으로 표시되는 출처(origin)에 의해 상대적으로 위치가 결정된다. (14c)의 경우는 <그림 6>의 (d)이며 절대적 특성을 보이는데 동서남북 같은 방향체계가 사용된다. <그림 6>의 d에서 북쪽을 나타낼 때 화살표(P)가 그림의 위를 향한다면 동쪽은 d처럼 오른 쪽을 향하고 있다.

3.2.2 Evans의 시간 참조틀

Evans(2013, 2019)는 공간을 이용한 시간 표현이 유용하고 구조적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시간의 참조는 공간 참조와 일치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Levinson의 공간 참조틀을 활용하여 내재적, 상대적, 절대적 시간 참조틀을 기본으로 10개의 시간 참조틀을 만든 Tenbrink(2011)와는 달리 Galton(2011)이 주목한 일시성(一時性, transience)[4] 유형에 따라 직시적 시간 참조틀, 순서적 시간 참조틀, 외적 시간 참조틀을 구성한다. 직시적 시간 참조틀과 순서적 시간 참조틀은 Moore(2006)에서 제시한 '참조틀' 그리고 각각 미래/과거나 먼저/나중 같은 '시간관계'가 제시한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적 참조틀은 Kranjec(2006)이 주목한 개념인데, 시간이 사건들이 발생하는 장(field)으로서 인식될 때 그 사건들이 발생하는 장은 시간의 행렬관계인 '기간'이며 이는 외적 참조틀에 의해 이해된다는 것이다.

4) Galton(2011)은 공간 개념을 이용해서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 적용 가능하지만 시간의 일시성이란 특징은 공간에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Evans의 시간 참조틀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의 일시성을 보자.

시간의 일시성을 최초로 주목한 Galton(2011: 696)은 시간의 특성을 다음의 네 개로 정리한다. 시간이 공간 개념을 이용해서 기술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공유하는 특성들에 기반 한 것인데 이 네 개의 특성중 시간의 일시성은 공간과는 다른 시간만의 독특한 특징이며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5)]

(15) a. Time is extended.
b. Time is linear.
c. Time is directed.
d. Time is transient.

위의 네 개의 특성을 공간의 특성과 비교해 보면, (15d) 일시성을 제외한 (15a, b, c) 세 개의 특성은 공간과 시간이 공유한다. (15a)의 확장성과 관련하여, 'a full day, empty hours' 같은 표현들은 시간이 한 점(at, on)이 아닌 시간이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공간의 확장성이 활용된 것이다. (15b)의 선형성과 관련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 할 때 선형성을 갖게 되는데, 'between sunrise and sunset', 'either side of midnight'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다. 선형성 역시 공간적 개념이다. (15c)의 방향성은 공간적 은유가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시간의 특성이다. 'back in the fifties'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의 표현은 시간이 앞은 미래, 뒤는 과거처럼 공간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쓰인다. (15d)의 일시성은 공간표현에서 찾기 어려운 시간의 고유한 특성이다. 'Time flies.' 'It came to pass.'라는 표현은 시간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시간의 일시성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한데, 공간이 일시성을 갖는 경우란 움직임이나 변화와 연결된 경우만이다. 그리고 공간의 움직임이나 변화는 시간이 개입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움직임과 변화는 시간의 일시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시간의 일시성은 우리의 경험에서 확실히 존재하는 중요한 특성인 것이다.

Evans(2013)는 Galton(2011)에 이어 시간의 일시성을 분류하고 시간 참조틀에 반영한다. 일시성이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간(duration)', '연속성(succession)', '이방성(anisotropicity)[6)]'이다. '기간'이란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순간적 지각보다는 긴 시간의 경험이다. '연속'이란 먼저와 나중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시간적 사건들 간의 순서이다. '이방성'이란 시간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비대칭성 즉, 미래, 현재, 과거의 경험이다. 다음 <표 1>은 일시성 유형의 내용이다.

표 1. 일시성 유형

일시성 유형	설 명
기간	시간의 경과를 경험
연속성	전후 순서의 경험
이방성	시간의 흐름이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임을 경험. 미래, 현재, 과거의 차이

5) Lakoff와 Johnson(1999: 138)는 시간의 인식은 사건을 관찰하고 사건들을 비교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사건간의 간격인 시간을 환유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시간의 특성은 방향성, 비가역성, 지속성, 분절성, 측정가능성을 갖는다고 기술한다.

6) 이방성(anisotropicity)이란 물체 안에서 방향에 따라 물체의 성질이 다른 것. 시간의 이방성이란 공간과는 달리 시간은 미래-현재-과거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특성을 말함. 비가역성(irreversibility)과 통함.

일시성 유형 중 '이방성'과 '연속성'은 Moore(2006)에서 이미 시간관계가 '미래나 과거' 그리고 '전후관계'로 나누어서 적용됨을 주목한 내용이다. 일시성 유형에서 Evans가 추가로 주목한 부분은 '기간'인데, 이는 순서를 나타내는 '연속성'이나 미래나 과거를 나타내는 '이방성'과는 다르며 실제 자아의 경험에 기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기간'은 Kranjec(2006)이 주목한 외적 참조틀과 연결된다. 외적 참조틀에서 시간 관계는 모든 다른 사건들을 포함하는 집합체 또는 틀로서의 행렬(matrix)을 구성하고 일시성 유형인 '기간'과 연결된다. 시간 참조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좌표(coordinate)와 일시성의 유형,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간 참조틀을 설명하고자 한다. 실제 시간표현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좌표는 기본적으로 공간좌표를 기본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

표 2. 시간참조틀의 좌표

좌 표	기 능
목표 사건(TE)	시간상의 사건. 일시성에 의해 확인된다. 공간 참조틀의 전경(figure)에 해당한다.
참조점(RP)	TE를 고정하는 점. 공간 참조틀의 참조물(reference object)에 해당되며 전경의 위치를 정한다.
출처(origo)	RP를 일시성 유형: 이방성(anisotropicity), 연속성(succession), 기간(duration) 중 하나에 고정시킨다. 공간 참조틀의 출처(O)에 해당한다.

위의 시간참조틀의 좌표는 앞서 3.2에서 본 <그림 5> 상대적 공간 참조틀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좌표는 목표사건인 TE (target event), 참조점인 RP (reference point) 그리고 출처 O (origo)로 구성된다. TE는 공간 참조틀의 F (figure)에 해당한다. RP는 공간 참조틀의 RO (refence object)에 그리고 O는 공간 참조틀의 Origo (observer)에 해당한다.

(16) We are fast approaching Christmas.
RP/O TE

위 (16)을 <표 2>의 시간 참조틀의 좌표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TE는 크리스마스이고 고정된 사건이다. TE가 고정되는 RP가 예문에서는 'we'이며 자아(ego)[7]의 위치가 된다. O는 RP를 일시성 유형에 고정시키는데, 이 예문에서는 관찰자가 경험하는 'now'가 O가 되고 이것이 일시성 유형 중 하나인 이방성에 RP를 고정시킨다. 그리고 그 이방성은 미래, 현재, 과거로 움직인다. 그래서 공간표현 즉, approaching이라는 움직임 표현을 이용해서 시간 참조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결과는 일시성 유형인 이방성을 배경으로 한 RP의 위치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크리스마스인 TE는 RP의 현재 경험과 관련해서 미래로 고정된다.

이제는 일시성 유형과 시간관계를 포함한 Evans(2019)의 시간 참조틀을 보자: 직시적 시간 참조틀(deitic t-FoR), 순서적 시간 참조틀(sequential t-FoR), 그리고 외적 시간 참조틀(extrinsic t-FoR)이다. 시간관계는 일시성의 유형에 따라 '미래, 현재, 과거', '전/후', 그리고 '행렬(matrix)'로 정해진다. 아래 <표 3>의 시간참조틀을 살펴보자.

7) Evans(2013: 419-420)는 시간 참조와 관련하여 자아중심인지 타인중심인지를 고려한 egocentric, allocentric: events, allocentric: field을 각각 직시적, 순서적, 외적 시간참조틀에 좌표유형으로 할당하였는데 이것은 Evans(2019)에서 O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통합된다.

표 3. 시간 참조틀의 종류

시간 참조틀의 명칭	일시성 유형	시간 관계
직시적 시간 참조틀	이방성	미래/현재/과거
순서적 시간 참조틀	연속	전/후
외적 시간 참조틀	기간	행렬

첫째, 직시적 시간 참조틀은 자아의 지금(now)에 의해 고정된 자아의 위치(RP)를 사용해서 TE를 고정시킨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직시 즉, 가리켜 지는 것은 자아중심의 '지금(now)'이다. 따라서 이 시간 참조틀은 일시성의 한 유형인 이방성으로 배경을 갖게 된다. 즉,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로 과거로 지나가는 비대칭적 경험이다. 이를 반영한 언어적 발화는 TE가 RP와 관련해서 미래기반인지, 현재기반인지, 과거기반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위의 예문 (16)과 아래의 (17)이 해당된다.

(17) 직시적 시간 참조틀에서 RP에 따른 TE 유형

a. Christmas is approaching. (Future based)

b. Christmas has arrived. (Present based)

c. Christmas has gone. (Past based)

(17)예문에서 a, b, c 모두 Christmas는 TE이다. RP는 경험자의 위치이고 각 문장들은 직시적 움직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 approaching, arrived, gone으로 TE가 미래기반인지 현재기반인지 과거기반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순서적 시간 참조틀이다. 이것은 시간좌표가 일시성 유형 중 연속성과 관련 있다. 자아의 '지금'과는 관계가 없고 '전후관계'라는 '사건의 순서(sequence)'만 존재한다. 이때 TE는 RP를 이용해서 고정되고 RP는 사건들 중 첫 번째 사건(O)에 의해 고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후관계'가 만들어 진다. 다음 예문을 보자:

(18) Christmas is before New Year's Eve.

(18)에서 TE는 'Christmas'이고, RP인 'New Year's Eve'라는 RP와의 관계에서 위치가 고정된다. 이때 O는 중요한 사건이거나 첫 번째 사건에 기준을 두게 되는데 (18)에서는 RP가 O와 일치한다. RP는 일시성 유형의 '연속'유형에 기준점을 잡게 된다. TE는 일시성의 유형에 배경이 설정되므로 RP보다 먼저인지 나중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 직시적 시간 참조틀과 마찬가지로 움직임에 의해 순서적 시간 참조틀을 잡게 되지만 이때 움직임이란 직시적 시간 참조틀의 그것과는 다르다. 정리하면, 이 시간 참조틀(t-FoR)은 자아중심적 (직시적) 시간을 평가하지 않고 사건들 간의 순서 즉, 먼저와 나중을 정하게 된다.

세 번째, 외적 시간 참조틀(extrinsic t-FoR)이다. 외적 시간 참조틀은 일시성 유형 중 기간과 관련되는데, 외적이란 의미는 일시성의 유형을 정할 때 내적 특성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직시적 시간 참조틀은 관찰자의 '지금 now'에 기준점을 삼게 된다. 그리고 순서적 시간 참조틀은 순서를 형성하는 여러 개의 사건들에 의해 시간 참조틀이 기준점을 잡게 된다. 반면에, 외적 시간 참조틀의 일시성 유형은 '기간'이 된다. 그리고 달력이나 시계 같은 시간측정 체계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때 발생하는 시간관계는 행렬관계인데, 이는 '기간'의 개념으로서 모든 다른 사건들을 포함하는 집합체 또는 틀을 만들어 낸다. 다음 예문을 보자:

(19) Christmas 1914

TE인 Christmas는 RP인 1914에 의해 고정되고 RP는 일시성 유형 중 '기간'에 기준점을 잡게 된다. 이것이 시간의 행렬 내부에서 TE에 의해 점유된 시점을 설정하고, 그 다음으로는 외적 개념을 제공하게 되어 TE를 절대적으로 고정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자아 중심적 '지금'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도 없으며 사건의 순서인 시간적 사건들 간의 내적 관계도 참조할 필요가 없다. 이때 TE, Christmas는 RP인 1914에 기준점을 잡게 되고 이것은 기간 행렬에서 1,914번째 반복되는 사건으로서 이때 출처(O)는 예수(Christ)의 탄생이라는 역사의 한 사건이 되고 그 사건 이후를 기점으로 날짜가 기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간이란 집합체를 구성하고 그 집합체는 여러 사건들이 모여 시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사건들은 특정 Christmas라는 TE가 되며 출처로 부터의 시간적 거리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출처의 사건으로부터 기간을 걸쳐 몇 번째인지를 세어서 1,914번째로 기준점을 잡게 된다.

Evans(2013, 2019)는 시간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로서 시간 참조틀을 개발하였는데, 기존 연구에서 발전된 부분은 공간과는 다른 시간 고유의 특성인 일시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세 가지 다른 시간 참조틀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직시적 시간 참조틀과 순서적 시간 참조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기간'을 일시성 유형에 설정하고 시간관계는 행렬로 만듦으로서 시간 참조틀의 설명력이 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종전의 개념적 은유이론에서 사용했던 공간을 기반으로 한 시간의 이해에서 시간 고유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4.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시간의 인지모형의 발전을 따라 살펴보았다. Lakoff와 Johnson(1980, 1999)의 개념적 은유이론은 근원영역에 따라 목표영역의 대상을 개념화하는 양상으로 시간 이해의 양상을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시간의 개념적 은유에 집중해서 시간 표현이 근원영역에 따라 '시간은 물건', '시간은 사람', '시간은 자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개념적 은유로 표현되는 양상 즉, 시간의 다양한 개념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Lakoff와 Johnson(1999)의 시간의 인지모델과 Evans(2004)의 시간 참조틀 모델을 중심으로 3.1에서는 '자아기반모델'과 '시간기반모델' 그리고 '시간순서모델'을 살펴보았다. 3.2.1에서는 공간 참조틀을 기반으로 시간 참조틀을 개발한 Tenbrink(2011)의 시간 참조틀 중 내재적 참조틀, 상대적 참조틀, 절대적 참조틀을 살펴보았다. 3.2.2에서는 Evans(2013)의 직시적 시간 참조틀, 순서적 시간 참조틀, 외적 시간 참조틀 모형을 살펴 보았다. Evans(2013, 2019)가 갖는 의미는 기존 시간 참조틀 연구에 이어서 일시성이라는 시간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간의 개념을 기술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간 추상적인 시간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인지모델은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개념적 은유이론은 그 초기 연구에 공헌한 바가 크며, 이후 공간과 시간이 공유하는 특징에 기반 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공간 참조틀을 활용한 시간 참조틀이 만들어 지고 다시 공간과는 다른 시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교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향후 연구 제안으로서

시간의 인지모형에서 많은 언어들의 공통적 특징 뿐 아니라 개별 언어적 특징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통해 시간에 대한 인간의 다양하고 정밀한 사고체계를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吉本一. 2006. 시간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기수. 2019. 실제 이동 경험이 시간에 대한 영어와 한국어 은유 표현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영어영문학 연구』61, 229-248.

김진해. 2009. 개념적 은유의 상대성_19-20세기 초 고소설을 중심으로.『어문연구』37, 85-110.

백미현. 2014. 시간의 개념적 은유 모형: 자아중심적, 탈자아, 객관화된 자아 해석.『언어연구』29, 685-707.

임지룡. 2002. 시간의 개념화양상.『어문학』77, 201-222.

Alverson, H. 1994. *Semantics and Experience: Universal Metaphors of Time in English, Mandarin, Hindi, and Sesotho*.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ender, A. and S. Beller. 2014. Mapping spatial frames of reference onto time: A review of theoretical accounts and empirical findings. *Cognition* 132, 342-382.

Boroditsky, L. 2000. Metaphoric structuring: understanding time through spatial metaphors. *Cognition* 75, 1-28.

Boroditsky, L. and M. Ramscar. 2002. The roles of body and mind in abstract thought. *Psychological Science* 13, 185-189.

Evans, V. 2004. How We Conceptualize Time. *Essays in Arts and Sciences* 33, 13-44.

Evans, V. 2006. Lexical concepts, cognitive models and meaning-construction. *Cognitive Linguistics* 17, 491-534.

Evans, V. 2013. Temporal frames of reference. *Cognitive Linguistics* 4, 393-435.

Evans, V. 2019. *Cognitive Linguistics: A Complete Guide*. Edinburgh University Press.

Galton, A. 2011. Time flies but space does not: Limits to the spatialisation of time. *Journal of Pragmatics,* 43, 695-703.

Kövecses, Z. 2003. Cultural variation in metaphor.『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Kövecses, Z. 2010.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ranjec, A. 2006. Extending spatial frames of reference to temporal concepts.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28, 447-452, Retrieved from https://escholarship.org/us/item/7c57g5w1.

Lakoff, G. 1993.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A.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202-25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koff, G. and M. Johnson. 1980. *Metaphor We Live B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G. and M. Johnson. 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Levinson, S. C. 2003. *Space in Language and Cognition: Explorations in Cognitive Divers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ore, K. E. 2006. Space to time mappings and temporal concepts. *Cognitive Linguistics* 17, 199-244.

Moore, K. E. 2011. Ego-perspective and field-based frames of reference: Temporal meanings of FRONT in Japanese, Wolof, and Aymara. *Journal of Pragmatics* 43, 759-776.

Núñez, R., M. Benjamin and T. Ursina. 2006. Time After Time: The Psychological Reality of the Ego and Time-Reference-Point Distinction in Metaphorical Construals of Time. *Metaphor and Symbol* 21, 133-146.

Núñez, R. and E. Sweetser. 2006. With the Future Behind Them: Convergent Evidence From Aymara Language and Gesture in the Crosslinguistic Comparison of Spatial Construals of Time. *Cognitive Science* 30, 401-450.

Reddy, M. 1993. *The Conduit Metaphor: A case of frame conflict in our language about language*. In A.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2nd ed.), 164-20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lmy, L.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MIT Press, Cambridge, MA.

Tenbrink, T. 2007. *Space, Time, and the Use of Language*. Berlin: Mouton de Gruyter.

Tenbrink, T. 2011. Reference frames of space and time in language. *Journal of Pragmatics* 43, 704-722.

Yu, N. 1998.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A Perspective from Chinese*. Amsterdam: John Benjamins.

Zinken, J. 2010. Temporal frames of reference. In P. Chilton and V. Evans (Eds.), *Language, Cognition, and Space: the state of the art and new directions,* 479-498. London: Equinox Publishing.

김현효, 교수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E-mail: hhkim@kongju.ac.kr